

항체 미형성 기간의 해야 할 일

실제 임상에서 HIV 항체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계속 불안해 하는 상담자를 상담수 접할 수가 있다. 아마도 항체 미형성 기간(window period)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 상담자일 것이다. 항체 미형성 기간과 잠복기간의 개념은 서로 다른데, 잠복기는 HIV 감염 후 에이즈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평균 약 10년이 소요된다. 항체 미형성 기간이란 HIV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보통 4~8주정도 소요되나 개인에 따라서 아주 드물게 6개월 이후에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체 검사법으로 HIV 검색(screening)을 하고 있으므로 HIV 감염자가 항체 미형성 기간에 현혈 한 경우에는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방송매체를 통해 부각됨으로써 일반인

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은 향상되지만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HIV 감염 위험행위 후 최소한 3개월이 지났으면 음성 결과는 믿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검사에서 음성이면 더욱 확실한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체 검사로서 HIV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HIV가 전파될 수 있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즉 위험한 성 관계 후 12주전에 부부생활은 콘돔을 사용하면서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불행한 경우를 대비한 HIV 전파를 막는 방법일 것이다. 콘돔은

HIV 전염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사용법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콘돔을 사용한다면 시에는 전염을 100% 예방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험한 성 관계 후 현혈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90~100%가 감염될 수 있으며 에이즈로의 진행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상에서 적십자 혈액원에서 나오는 혈액은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 흔히 질문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하여 HIV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혈액만 사용토록 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시행되는 항체 검사법으로는 항체 미형성 기간 동안 현혈된 혈액의 감염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혈로 인한 HIV 전파확률은 수혈 혈액 약 백만분의 1 정도라고 한다. 즉 감염자가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헌혈자에 대하여 더욱 예민한 검사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위험도를 한층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HIV 감염 후 항체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그 이후에도 양성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 위험행위 후 3개월후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도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하여 감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에이즈 예방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

조 균 제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